



< 녹 취 문 >

과제명	2025년 미추홀학산문화원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구술자	김용익		
면담자	김용경	면담지원자	표기자
면담일시	2025. 08. 16.10:00	면담장소	학산문화원 동아리1실
녹취문 작성자	김용경	회차	2회차 (최종면담)

1. 시작멘트 : 일시 및 연구진 소개 (00:00:00~00:01:36)

본 면담은 2025년 인천광역시 미추홀 학산문화원의 주민 구술 채록을 위한 인터뷰입니다. 2025년 8월16일 오전 10시 학산문화원 동아리1실에서 진행되는 옛 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 도시의 변화에 대한 기록을 위해 구술해 주실 분은 김용익 선생님입니다. 면담은 미추홀 시민기록단 김용경이며 면담 지원은 표기자 님 이 진행합니다.

2. 근황 (00:01:37~00:03:12)

구술자: 네, 안녕하십니까.

면담자: 지난번 사전 면담 때는 기본적인 것만 했는데 오늘은 선생님이 기억하고 계신 걸 다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몇 년도에 태어나셨습니까?

구술자: 1956년도요.

면담자: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구술자: 인천 용현동 206번지입니다.

면담자: 거기가 어디쯤입니까?

구술자: 용일초등학교 옆쪽이에요.

면담자: 아, 그렇군요. 고향이 바로 이 동네시네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용일초등학교 나오셨습니까?

구술자: 네, 용일초등학교 나왔고, 이 동네에서 거의 50년은 살았죠. 지금은 서구로 간 지 20년 정도 됐습니다.

면담자: 어린 시절은 어떠셨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구술자: 우리 시대에는 선생님이 하늘 같은 존재였죠.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 오원진 선생님이셨는데 기억에 남습니다.

면담자: 그때 용일초등학교는 오전·오후반이 있었나요?

구술자: 당연하죠. 제가 다닐 때 1학년만 해도 다섯 학급이었어요.

면담자: 한 반에 몇 명 정도였습니까?

구술자: 8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0명쯤, 전교생은 2천 명쯤 됐을 겁니다.

면담자: 옛날엔 학교가 통폐합도 많이 했지요.

구술자: 맞습니다. 용일초가 처음 생길 때는 위 학년들은 학익초, 용현초, 승의초에서 와서 섞였고, 우리 학년부터 1학년으로 입학했습니다.

면담자: 네. 지난번 말씀에 인천기계공고 화학과를 나오셨다고 했는데, 화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구술자: 당시 공고는 졸업하면 바로 취직하는 게 목적이었고, 기계·토목·건축 같은 과가 인기였어요. 저는 생소해서 화학과를 갔는데, 때마침 박정희 정권에서 중화학공업 육성을 강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72년도에 입학했습니다.

면담자: 죄송하지만 그때는 기계과, 자동차과가 인기 있었지요?

구술자: 그렇죠. 성적순으로 기계, 건축, 전기, 자동차 이렇게 나갔습니다. 저는 그냥 운 좋게 들어간 거죠.

면담자: 그래도 기계공고는 명문 아닙니까?

구술자: 명문 나와도 사회에 나오면 다 똑같습니다.

면담자: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군대 가셨나요?

구술자: 아니죠. 졸업하자마자 군대 못 갑니다. 19살인데. 좀 놀다가 영창악기 실습도 다니고, 동양화학 직업훈련소도 다니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면담자: 동양화학 직업훈련소 1기셨나요?

구술자: 네, 직업훈련생이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각 전공 출신들을 모아 트레이닝하고 부서 배치하는 제도였죠. 정부 방침이었습니다.

면담자: 1년 과정이었습니까?

구술자: 네, 수료는 1년이었는데 저는 중간에 군대 갔습니다.

면담자: 군 복무는 어디서 하셨나요?

구술자: 연천 5사단이었습니다. 당시 부대 개편 시기에 들어갔습니다.



면담자: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구술자: 1981년 6월에 했습니다. 연애할 때 아내가 집에 자주 오니까 부모님이 빨리 결혼하라고 하셔서요.

면담자: 자녀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구술자: 아들은 인하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와 혼자 살고, 딸은 결혼해서 삼산동에 살며 손주가 하나 있습니다.

3. 근무 및 주요업무

면담자: 이제 회사 얘기를 여쭙겠습니다. 제대 후 1981년 6월 9일에 입사하셨다고 했는데, 처음 근무 부서는 어디였습니까?

구술자: 유기화학, 일명 정밀화학 부서였습니다.

면담자: 거기서 생산 업무를 하셨나요?

구술자: 네, 고무 가황 촉진제를 만들었습니다. 합성고무 원료죠. 타이어, 고무장갑 등 제품마다 다른 촉진제가 들어갑니다.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같은 회사에도 납품했습니다.

면담자: 생산라인은 제품별로 달랐습니까?

구술자: 네, 라인이 달랐습니다. 저는 여러 라인을 돌아다니며 관리했습니다. 촉진제 외에도 농약, 성장촉진제, 살균제 등도 생산했습니다.

면담자: 제초제 얘기도 해 주시죠.

구술자: 파라쿼트라는 제초제를 만들었습니다. 영국 ICI라는 다국적 기업이 만든 건데, 기술을 들여와서 생산했죠. 나중엔 공장 규모와 생산성을 보고, ICI가 직접 공장을 사들이고 생산 중단을 조건으로 원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대성농약에서 후공정을 맡기도 했습니다.

면담자: 이후에는 어떤 업무를 맡으셨습니까?

구술자: 살균제도 만들었고, 회사가 축소되면서 폐수처리장 관리까지 맡았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꽤 오래 했습니다. 공장이 차례로 문 닫아가니 이것저것 겸직하게 된 겁니다.

면담자: 정밀화학 공장은 언제 폐쇄되었습니까?

구술자: 소다회 공장이 2004년, 정밀화학 공장이 2006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일



부 무기화학 공장만 남았습니다.

면담자: 이거는 무기 쪽이지요?

구술자: 그렇지, 무기지. 염산을 인천 공장으로 가져와서 석회석하고 섞으면 염화칼슘이 나와. 군산에서 염산이 잉여로 많이 나오니까 그걸 처리해야 했어. 군산 염산이 콩크 염산이라고, 게스 염산인데, 그걸 쓰고 나면 30%짜리 염산이 나와. 원래 고농도 염산은 33% 이상인데, 30%니까 원료로도 사용을 못 해. 그래서 그걸 인천 공장으로 가져와서 염화칼슘을 만든 거야. 소다 공장은 문 닫았지만 석회석하고 염산을 섞으면 염화칼슘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것도 내가 맡아서 했지.

면담자: 여러 가지를 하셨네요.

구술자: 오만 거 다 했어. 마지막엔 염화칼슘까지 만들다가 2017년 7월 20일에 끝났지.

면담자: 2017년?

구술자: 그래, 2017년 7월 20일까지 근무하고 나는 끝낸 거야.

면담자: 그럼 30년 넘게 하셨네요. 한 36년?

구술자: 36년, 거의 한 달 반 정도 더 했지.

면담자: 그때는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셨나요?

구술자: 처음에는 3조 3교대, 그다음엔 7조 3교대, 그다음엔 4조 3교대. 근무 형태가 자꾸 바뀌었지.

면담자: 근무 형태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구술자: 근무가 24시간이니까 8시간씩 하는 거지. 나는 교대근무를 6년 정도만 하고 그 뒤엔 안 했어. 근데 노사 단체협약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으로 근무 형태가 계속 바뀌었어. 그러다 7조 3교대를 시행했지.

면담자: 7조 3교대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술자: 이틀씩 야간, 이틀 조근, 이틀 석근, 그리고 하루 쉬고. 3조 3교대는 거의 쉬는 날이 없는데, 7조 3교대는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 노동법상 의무니까. 나중에 주 44시간, 그다음엔 주 40시간으로 바뀌면서 근무 형태도 바뀌고 OT로 보충하기도 했지. 나는 교대근무를 일찍 그만둔 편이라 자세히는 몰라.

면담자: 그럼 진급은 어떻게 됩니까?

구술자: 기능공으로 들어가면 시험이나 평가를 통해 반장이 돼. 반장 위가 주임이고, 주임이 기능직 최고였어. 우리는 기능직이라 엔지니어랑 달랐지.



면담자: 기장 제도는 없었나요?

구술자: 처음엔 없었지. 나중에 주임을 기장으로 바꿨을 뿐이야. 다른 회사에서는 기장 제도가 있었지만, 동양에선 주임이 곧 기장이었어.

면담자: 반장은 개장 정도 됩니까?

구술자: 뭐, 그런 셈이지.

면담자: 아까 말씀에 교대는 6~7년 하셨고, 그 뒤엔 주간만 하셨다고요? 주간으로 바뀌고 삶의 패턴은 어떠셨습니까?

구술자: 교대근무는 불규칙해. 평일에 쉬고, 밤 10시에 출근하기도 하고, 오후 3시에 출근하기도 하고. 피곤하지. 주간으로 바뀌면 아침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니 정상적인 생활이 되는 거야.

면담자: 교대 시절엔 여가 활동은 어떻게 하셨어요?

구술자: 나는 친구들과 술을 많이 먹었어. 회사 동료랑도 어울렸지만, 고향이 여기라 친구들이 많았거든. 주말엔 술 마시고 놀고, 가끔 낚시도 다니고. 그때는 취미 활동이 다양하지 않았어. 돈도 많지 않고, 스키장이나 다이빙 같은 건 엄두도 못 냈지. 그냥 술 마시고 놀았어.

면담자: 지난번에 말씀하시길 87년도부터 주간 근무를 하셨다고 했는데, 주간 근무 때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구술자: 교대근무자들을 관리했지. 전체적인 공정 관리. 반장이 된 거야. 원래 반장도 교대근무를 하는데, 내가 맡은 프레저트 공장은 주임이 없어서 반장이면서 주간 근무를 한 거지.

면담자: 그 프렌트에선 뭘 생산했나요?

구술자: 여러 가지 했지. 농약도 있고. 무기화학 공장은 규모가 컸지만, 정밀화학은 소규모였어. 그래도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했지. 토양 살균제, 성장 촉진제 같은 거. 톤당 수천만 원짜리 제품도 있었어. 주로 일본에서 기술이 들어왔고, 고추나 굴에 쓰면 속성이 빨라지는 약이었지. 양은 많지 않았지만 값이 비싸서 회사가 돈이 됐어.

면담자: 그 공정들이 자동화되진 않았습니까?

구술자: 거의 수동이었어.

면담자: 80년대 후반이면 자동화로 넘어가는 시기 아닌가요?



구술자: 자동화라는 게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지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 세대는 자동화를 불편해했어요.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넘어가는 단계라 예러도 많고. 실제로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인해야 정확한데, 자동화라는 건 센서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초창기라 발전도 덜 됐고. 지금은 많이 발전했지만 그때 아니었죠.

면담자: 자동화가 돼도 예러가 발생하면 결국 사람이 가서 해결해야 하니까 불편하셨던 거군요.

구술자: 맞아요. 게다가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효과가 있어야 자동화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죠.

면담자: 제 경험으로는 88년 올림픽 즈음에 정부 지원도 있었던 걸로 알아요.

구술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긴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엔 드물었어요. 그래도 공정을 반자동화해서 3명이 하던 걸 1명이 맡도록 줄이는 건 했죠. 결국 인력 줄이는 거죠.

면담자: 그렇게 한 10년 정도 근무하신 것 같네요.

구술자: 10년이 아니라 계속했죠.

면담자: 그리고 나서 구조조정이 있었다고요?

구술자: 구조조정은 회사가 문을 닫으니까 자연히 인력이 줄어든 거예요.

면담자: 몇 년도쯤이었나요?

구술자: 제일 크게 한 게 2004년이에요. 그때 소다 공장이 문 닫았어요. 정밀화학은 2006년인가 2007년에 문 닫았고요. 그래도 내가 10년을 더 다닌 건 군산에서 나온 잉여 염산을 인천에서 염화칼슘 만드는 데 썼기 때문이에요. 또 시약도 담당했었고요.

면담자: 정밀화학이 2007년에 문을 닫았는데 선생님은 10년을 더 다니셨군요. 그럼 어디서 일하신 건가요?

구술자: 염화칼슘 만드는 거 했어요. 폐수장도 맡았고.

면담자: 염화칼슘은 무기화학 쪽인가요?

구술자: 네, 무기화학 쪽이에요. 정밀화학 쪽에서 초액을 만들어서 보내면 다른 공장에서 농축시켜 고체로 만들었죠. 염화칼슘은 사실 제설제 말고는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산 값이 오르기도 했고요.



면담자: 설명 잘하시네요.

구술자: 에이, 머리 나빠서 더는 몰라요. 대학도 안 나왔는데 뭘.

면담자: 그러면 2017년에 완전히 정리하고 나오신 거네요.

구술자: 네, 짝 다 정리했죠.

면담자: 회사 사택에는 안 사셨어요?

구술자: 안 봤어요. 자격이 있어야 했는데 나는 여기다 집을 지었거든요. 주유소 뒤에
다가 두 채.

면담자: 그 집이 지금도 있나요?

구술자: 네, 지금도 있어요.

면담자: 사택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나요?

구술자: 결혼해서 집 없는 사람들. 지금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 주는 거랑 같은 개념
이에요. 자격 조건 심사해서 들어가는 거죠. 총각은 기숙사 있었고요. 극동방송 자
리 위쪽에.

구술자: 그 기숙사 구조가 어땠나요?

면담자: 지금 말로 하면 오피스텔 비슷했어요.

구술자: 아파트 뒤쪽에 서인천 폴장도 있었잖아요. 많이 이용하셨어요?

면담자: 여름에 동양 직원들은 거기 갔죠. 표도 나눠줬고, 사실 직원이면 표 없이도
얼굴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교대 근무 끝나고 단체로 가서 놀고 술도 먹고 그랬죠.

구술자: 복지 수준은 어땠나요? 인천 사람들 사이에선 동양화학이 선망의 대상이었던
데요.

구술자: 평균적인 수준이었죠. 제일 메리트 있는 건 사원 아파트였어요. 들어가면 돈
모아서 집 장만하기 좋으니까요. 나같이 못 들어간 사람은 별 볼일 없었고.

면담자: 그래도 집도 있고 부자셨잖아요.

구술자: 아니에요. 부자는 아니고, 집은 내가 지은 거고요.

면담자: 출퇴근은 어떻게 하셨어요?

구술자: 걸어서 다니기도 하고 자전거 타기도 하고, 나중엔 차도 샀어요. 코란도 사서
냥시 다니고 그랬죠.

면담자: 냥시를 좋아하셨군요.

구술자: 네, 그때 좋아했는데 지금은 체력이 안 돼서 못 해요.

면담자: 사내 동아리 활동은 안 하셨다고 했죠?



구술자: 네, 거의 안 했어요. 초창기에는 동아리 자체가 없었고, 나중에 생기긴 했는데 나이도 있고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힘들니까 안 했죠. 대신 친구들이랑 등산 다니고 그랬어요. 회사 동아리는 회사 얘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등록된 동아리는 아마 지원을 조금은 받았을 거예요.

면담자: 회사 생활하면서 퇴근 후에 동료들이랑 술자리는 주로 어디서 하셨어요?

구술자: 거기 있잖아요, 지금 SK아파트 있는 쪽. 그 옆에 중국집도 있고, 몇 군데 있었어요. 송도 구성도 있었고, 또 조개구이집 같은 데도 있었고. 근데 나는 회사 동료들이랑은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술 마시고 놀면 집 가까운 데서 놀아야지, 차 끌고 멀리 가서 술 마시고 운전하면 곤란하잖아요. 송도 쪽으로 가면 내가 친구들과 어울려야 하는데, 나는 동네 친구들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 있으니까 굳이 회사 동료들이랑 죽자사자 어울려 다니진 않았어요.

면담자: 그래도 회사 동료들이랑 어울리는 경우도 있었죠?

구술자: 그렇죠. 근데 아주 막 그렇게 어울려 다니진 않았어요. 그 친구들도 다 똑같잖아요. 먹고 살자고 직장생활 하는 건데, 맨날 술 먹고 놀 수는 없잖아요. 나는 직장생활의 목적은 먹고 사는 거라고 봐요. 술 먹고 노는 건 부차적인 거고.

면담자: 그래도 회사 분위기상 레저 활동 같은 건 있었을 것 같아요.

구술자: 있었죠. 동료들끼리 모여서 배 낚시도 가고 그랬어요. 인천 연안부두 가면 배 하루 빌릴 수 있잖아요. 배 하나 빌려서 바다낚시 가고. 그런데 우리 세대 때는 취미생활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았어요. 산에 다니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지만, 등산복이 유행하던 시절도 아니고. 나는 그냥 술이나 먹고 고스톱 치는 분위기였어요. 김 선생님 같은 분은 산에 많이 다녔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고스톱이 많았죠.

면담자: 고스톱은 어디서 많이 치셨어요?

구술자: 뭐 여기저기 다녔죠. 이 집, 저 집. 식당에서도 하고, 옥련동 조개고개 같은 데 가서도 하고.

면담자: 회사 근처에도 그런 식당이 있었나요?

구술자: 정밀화학 쪽은 그런 게 없었어요. 무기화학 쪽 애들은 후문 근처 식당에 자주 갔죠. 나는 정밀화학 쪽이라 잘 안 갔고. 기숙사 애들은 기숙사 바로 밑이라 거기 많이 갔어요. 거의 살다시피 했죠.



면담자: 혹시 동양식당 기억하세요?

구술자: 알죠, 유명했죠. 동양식당 아주머니가 카바레도 자주 다니셨는데, 거기서도 가끔 만났어요. 지금도 영업하나요? 옆에 정육점도 있었는데.

면담자: 정육점은 없어지고 이발소가 있더라고요.

구술자: 그 이발소도 사건이 많았어요. 주인도 그렇고, 별일이 많았죠. 주인도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성은 아마 최 씨였을 거예요. 내가 알던 직원 작은아버지라고 하던데.

면담자: 그 지역이 지금은 호미마을이라고 불리는데요?

구술자: 나는 호미마을 하면 송림동 쪽이라고 알았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불러요? 거기 면허시험장 있는 근처죠. 예전에 두부공장도 있었어요. 그 주변에 동양 직원들이 많이 집을 샀어요. 전세, 월세 살다가 매입해서 정착한 사람들이 많았죠.

면담자: 석회석으로 카바이드도 만들지 않았나요?

구술자: 나는 안 했는데, 카바이드 원료가 CaO예요. 물을 넣으면 가스가 발생하죠. 옛날에 그걸 '간드레'라고 불렀어요. 낚시터 가면 간드레로 불 붙이고 그랬잖아요. 또 예전에는 산소 절단기에도 카바이드를 썼어요. 물을 넣어서 가스를 발생시키고, 그 불로 절단을 하는 거죠. 배다리 쪽에 철공소가 많았는데, 그때 다 카바이드로 절단했어요. 지금은 LPG랑 산소를 같이 쓰지만, 옛날엔 그랬습니다.

면담자: 회사에서 제품 만들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일은 없으세요?

구술자: 화학공장은 늘 긴장 속에 있어요. 즐거운 '에피소드' 같은 건 별로 없고, 항상 비상사태 같은 거죠. 잘못하면 화재, 폭발 나니까. 그런 상황이니깐 늘 조심하고 살았어요.

면담자: 건강은 어떠셨어요? 위험 물질도 많이 다루셨을 텐데요.

구술자: 안 좋은 원료 많이 썼죠. 벤젠, 톨루엔 같은 발암물질, 유기용제를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안전장치라고 방독마스크나 양압시설 같은 걸 해놓긴 했죠. 노동부에서 지시하면 설치하고. 그래도 현장 근무 조건은 좋다고 할 수 없었어요. 늘 긴장 상태였죠. 불 날 염려, 폭발할 염려, 안전 사고 위험이 항상 있었으니까요.

면담자: 선생님 본인은 상해를 당한 적이 있으셨어요?

구술자: 나는 없었지. 장애 단위도 없고. 근데 안전사고가 의외로 좀 나긴 나. 저런 공장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 쪽 공장 같은 데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인사



사고도 나고. 왜냐면 여러 가지 화학물질도 취급하고, 기계 장치도 어마어마하거든.
그거 빼놓으면 다치는 거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 더러더러.

면담자: 가장 위험한 공정은 뭐였습니까?

구술자: 공정이라고 보면, 원료 자체가 위험해. 이쪽 공장에서는 암모니아가 좀 위험했고, 무기화학 쪽, 정밀화학 쪽은 다 위험해. 근데 특히 제일 위험한 게 산화에틸렌이라는 게 있어. 내가 알기로는 수소 다음으로 위험한 건데, 이게 여수에서 올라와. 수소 다음에 위험하다는 건 내 말이고, 정확하진 않아. 내가 운전기사한테 들었는데, 개네들 안전교육이 뭐냐면, 도로로 가다가 앞에 사람이 얼쩡대면, 차를 틀면 전복되잖아. 그럼 어마어마한 폭발사고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개네들은 안전교육을 그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뭐 인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사람 치는 게 낫다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거지. 그 정도로 위험한 물건이야.

산화에틸렌이라는 게, 성장촉진제 원료로 쓰여. 또 PCS라는 게 있어. 무기 만드는 원료인데, 40개국에서 무기 만드는 거냐 하고 사찰도 나왔었어. 내가 만드는 그 원료 갖고, 너희가 무기 만드는 거냐, 아니면 성장촉진제 만드는 거냐. 북한 핵 사찰 나오듯이, 그렇게 외국에서 온 적도 있었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즐거운 에피소드 같은 게 있겠어? 늘 긴장 속에서 일하는 거지. 가스 발생하고, 잘못하면 큰일 나고.

면담자: 인화 물질도 많았겠네요.

구술자: 엄청 많지. 특히 시약 쪽이 더 많아. 시약이라는 게 뭐냐면, 실험실에서 쓰는 걸 소분하는 거야. 큰 양을 소분해서 납품하지. 내가 아는 사람이 그쪽 담당 주임이 있어. 지금은 두원빌딩 관리소장으로 있는데, 예전에 거기서 시약 관리했지. 필요하면 내가 소개해 줄 수도 있어.

면담자: 아까 말씀 중에, 생산품 중에 PVC, 고무장갑, 금호타이어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경기 따라 소멸되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재직 시 기억나는 호황기에 잘 팔린 제품은 뭐였습니까?

구술자: 우리가 그걸 시제트라고 불렀어. 제품명이야. 또 MDM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게 주력이었어. 많이 만들었지. 나는 거기 들어가서 처음 알았어. 인터넷에 'MDM 시제트' 쳐보면 나올 거야. 고무 촉진제야. 종류도 많아. CGS-M, DMM, MBS, NS... 이런 것들.

면담자: 그 촉진제가 들어간 완제품 중에 가장 잘 팔린 건 뭐였을까요?



구술자: 그건 내가 모르지. 아마 타이어 쪽이지 않을까 싶어.

면담자: 유기화학 제품 다루신 경험을 집에서 활용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구술자: 할 수가 없어.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큰 공장에서 여러 원료를 온
도, 압력 맞춰서 만들어내는 건데, 집에서 어떻게 하겠어.

01:08:51

면담자: 사원 아파트는 자격이 따로 있었나요?

구술자: 자격이라기보다는, 4개 동이 있었는데 큰 평수, 작은 평수 있었어. 직원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많이 지은 거지. 기업이 하면 세금 혜택도 받고, 복지 차원도 있
고. 그때는 집도 부족했으니까 다들 들어갔어. 동양 출신들 거의 다 사원 아파트 살
았을걸.

면담자: 직원 채용은 인천 지역에서 많이 했나요?

구술자: 그랬지. 90년대 초반쯤 되면, 회사가 엄청 성장하는 과정이었거든. 예전에는
공고 나온 사람, 심지어 중학교 나온 사람도 현장 기능직으로 들어왔어. 근데 90년
대 중반쯤 되니까 전문대, 특히 인하공전 출신들을 많이 뽑았어. 무더기로 들어왔
지. 우리 인천기계공고 출신들도 많았어. 내가 81년에 입사했을 때 직원이 천 명쯤
됐는데, 동문회 보니까 기계공고 출신이 한 70명 됐어. 그 정도면 꽤 많은 거야. 나
중에는 인하공전, 동양공전, 유한공전 출신들도 많이 들어왔어. 다 현장으로. 그러
다 보니 전문대 나온 애들이 불만이 많았지. 고등학교 출신이랑 같은 대우니까.

면담자: 그게 노조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나요?

구술자: 나는 몰라. 노조를 안 했으니까. 관리직으로 일찍 빠졌거든. 주임급 이상은
노조 가입을 안 했어. 그때는 자율가입이었지.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내 밑에 직원들은 워낙 제멋대로라 노조 탈퇴도 하고, 왔다 갔다 했어. 회사가 다
일률적인 게 아니야.

면담자: 옥시크린도 여기서 만들었나요?

구술자: 그건 익산에서 했어. 자동차 제습제, 세제 같은 거. 옥시크린은 과산화수소
원료로 만드는데, 세탁력이 좋다고 했잖아. 결국 탈색이 잘 되는 거지. 나중에 가습
기 살균제 사고도 그거랑 관련돼서 터진 거야. 그 회사 맡은 사람이 동양 출신인데,
독박 쓴 거지. 지금도 해결 안 됐잖아.

면담자: 물먹는 하마는요?

구술자: 그건 염화칼슘이야. 고체 염화칼슘을 소포장한 거지. 자체 내에서 한쪽 구석



에서 했어.

면담자: 36년 동안 직장생활하시면서 지금은 어떤 느낌이세요?

구술자: 고마운 점도 있고, 불만도 있었지. 직장생활이 다 그렇잖아. 내 인생 30년을 거기서 보냈고, 가족들 먹고 살았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해. 물론 젊을 땐 불만 많았지. 직장인은 누구나 그래. 돈 받는 사람은 늘 적다고 하고, 주는 사람은 많다고 하고. 결국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면담자: 창업주 이혜림 회장님에 대해 알고 계신 건요?

구술자: 훌륭한 분이시. 마지막 개성상인이라고 하지 않나. 자서전도 있고. 어려운 시절에 남의 집살이하면서 기업을 일군 분이야. 대단한 거지. 송도고등학교도 개성에서 내려온 거잖아. 개성향이라서 재정난 때 도왔던 걸로 알아.

면담자: 직접 빈 적은 없으세요?

구술자: 직접 애기한 적은 없지. 다만 매년 종무식이나 시무식 때 오셔서 연설하셨지. 우리는 그냥 쪽 서 있거나 앉아서 듣는 거고.

면담자: 아드님은 아신다면서요?

구술자: 아들을 어떻게 알아? 내가 아들 죽었잖아. 이수영이, 이수영 씨 죽었잖아. 엄청 오래됐지, 그 사람도.

면담자: 그 회장님 후에...

구술자: 그렇지. 포천에 우리 연수원이 있다고. 포천에 영선이 있어요. 그 양반이 개성이 고향이니까 개성 가까운 포천에다가 박정희 정권 시절에 산림녹화 있잖아. 그 때 대기업마다 '삼성 너네 이 산 사서 녹화해' 이런 거 많이 시켰다고. 그래서 동양화학에서는 포천 쪽에, 백군인가 뭐가 거기 아주 넓은 부지를 샀어. 그걸 연수원으로 준 거야.

면담자: 연수원?

구술자: 그렇지. 연수원 쥐가지고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교육받고 그랬지. 나 초창기에는 낙산사 유스호스텔 알아요? 거기 밑에 유스호스텔이 있었는데 그것도 동양화학 거였어. 거기 가서 교수들 초빙해서 강연 듣고 교육하고. 그런 건 참 훌륭한 일이었지.

면담자: 사진은 제가 봤어요. 한재섭 씨가 소장하고 있는 사진.

구술자: 무섭이겠지 뭐. 난 사진 찍은 게 없어. 내가 얼굴도 작고 사진 찍는 거 싫어서 사진이 하나도 없어. 어디 있긴 있겠지.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



면담자: 인터뷰에 맞는 사진 몇 장만...

구술자: 없어, 없어. 왜냐하면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사진 찍으려면 일부러 카메라 가져와야 했는데 누가 회사에 카메라 들여오겠어? 회사 기밀이거든. 교육 가서 찍은 단체사진은 있겠지.

면담자: 단체 추리닝 같은 거 입고.

구술자: 있지. 동양화학 이름 새긴 유니폼도 한 번씩 썼으니까. 자, 이제 시간 다 된 것 같네. 질문하세요.

면담자: 퇴사하시고 지금 후배 회사에서 근무하신다고 들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구술자: 내가 여기서 폐수처리장 관리했잖아. 근데 후배가 직원 200명 되는 식품회사 다니는데, 2017년에 퇴사하고 2018년까지 실업급여 받고 이력서 내니까 취직이 되더라고. 나이 먹은 사람을 왜 뽑나 했더니, 폐수처리장은 젊은 사람들이 잘 안 해. 냄새도 심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메리트가 있었던 거지. 후배 소개로 들어서서 그냥 관리하는 거야.

면담자: 폐수처리장이라면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해요?

구술자: 그건 회사 비밀이지. 대한민국 전체가 슬러지는 환경부에 등록돼 있어. 소각 아니면 매립. 운반차에 GPS 다 달려 있어서 추적도 다 되고. 아무 데나 못 버려. 나는 그냥 직원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만 하는 거지. 이 나이에 육체적으로 편하니까.

면담자: 지금은 그래도 여유가 좀 있으시잖아요. 여가는 어떻게 보내세요?

구술자: 힘들어.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어서 약을 많이 먹어. 약 타러 가면 이만큼 쪼. 하루 만 보 이상은 걸어. 회사 다니면서도 걸어 다니고 운동도 되고.

면담자: 운동 따로는 안 하세요?

구술자: 안 해.

면담자: 그래도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구술자: 건강은 남자끼리 있을 때 얘기하는 거야. 아직은 건강하다는데 속병은 모르는 거니까.

면담자: 저도 얼마 전 췌장암 걸린 친구가 호스피스 들어가서 마지막 인사하고 왔어요.

구술자: 에이, 뭐. 나 내일 모레 70인데. 이 나이 되면 다 그렇지 뭐. 나는 주로 친구



들이랑 어울려. 술 한잔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골프 같은 건 돈도 많이 들고 굳이 할 필요 없어.

면담자: 휴일은요?

구술자: 휴일엔 친구 만나지. 그게 낙이야. 장수대공원도 가끔 들고. 일주일에 5일은 운동하니까 토요일, 일요일까지는 무리지.

면담자: 여행은 안 다니세요?

구술자: 많이 다녔지. 회사 다닐 때 외국도 가고. 집안 식구들이랑도 봄, 가을로 여행 다녔어. 대한민국 안 가본 데가 없어. 고등학교 동창 네 부부랑은 30년 동안 같이 다녔어. 그런 부부 거의 없더라고.

면담자: 차는 두 대로 가세요?

구술자: 각자 차로 가지. 그래서 회사 사람들하고는 잘 안 어울렸어. 지금도 동양화학 출신들이랑은 두 달에 한 번씩 모여. 열댓 명이 모여서 밥 먹고 옛날 얘기하지.

면담자: 오늘도 장시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술자: 나 이제 더는 부르지 말아요. 오늘도 새벽부터 선산 다녀오느라 힘들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조상님들 다 거기 모셔져 있어.

면담자: 아, 윤성 아파트 쪽 말씀하시는 거군요.

구술자: 맞아요. 그 뒤로 올라가면 우리 선산이 있어요.

면담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진은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구술자: 영정사진이나 하나 찍어줘. 이 나이에 그게 필요하지.

면담자: 예, 잘 찍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